

예산안 처리 불발따라 여야가 마주할 정국은

민주당, 여소야대 정국 주도권 잃을까...한국당·국민당, '발목잡기' 비판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왼쪽부터)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 불발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좌초됐다. 예산안 처리가 제 때에 성사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3년 만이다. 3일 여야 3당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대 측에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다. 이번 상황을 통해 3당이 마주하게 될 정국은 단순한 책임 전가 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아꼈던 배양 가능성에 높아졌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발목잡기'나

'대승적 협조 부족' 등의 비판 여론으로 인해 민심잡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한국당 복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불고 있는 통합 기류 등을 비롯해 이른바 보수통합이라는 야3당 통합이라는 정계계편 구도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3당 통합까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의 일부 흡수로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5석까지 줄인 한국당에 원내 1당 자리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교집단체인 바른정당도 이번 불발 사태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정의당도 '협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며 추방형식의 정치를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 이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계 송구하다'는 입장을 함께 드러냈다. 이는 각 당이 살펴야 할 민심의 질타를 우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이른바 '보수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해소할만한 뚜렷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대선 이후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60대 이상 계층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0%를 웃돌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 잡기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최근 당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놓고 벌어진 갈등양상으로 정당 지지율과 지역별 정당 지지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70%, 40% 후반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지지세 반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도 등장한 것이기에 국민의당으로서 지지층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대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 여론의 공분을 사기라도 한다면 국민의당으로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불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를 바라고 있다. 다만 여당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연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안철수 "3등이 노력해 2등 올라야 건강한 다당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이대로 3등을 계속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쪽으로 가버린다. 노력해서 2등으로 올라야 건강한 다당제가 유지된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신크랭크 미래 출범식 및 팬클럽 행사'에 참석해 "당이 계속 1등을 하고 2당이 계속 2등하고, 3당이 계속 3등하

는 구조가 다당제가 아니다. 다당제에서 3등이 계속 3등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초 국민의당이 탄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당제는 너무나도 당연했다. (국민이) 다당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당제가 왜 좋은지도 몰랐다.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일관되게 양당제 찬성자가 25%고, 다당제를 찬성하는 사람 65%"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선수로 뛰어 정권 재창출 가능성 있다면 또 도전"

"적폐 청산은 우리 모두의 의무"

안희정 충남지사는 1일 대권에 재도전할 의향이 있는 집외에 대해 "제가 선수로 나가서 뛰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면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특강'에 강연자로 참석해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정권도 지지를 받아 재창출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다음 행보는 결정했

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도지사로서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연초 정도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 드리겠다"며 말을 삼갔다. 안 지사는 또 "보수 정치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가치는 아니다. (새가) 죄우의 날개로 날 듯이 진보와 보수 체제가 국가와 민주주의를 잘 떠받쳐야 한다"면서 "그 속에서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중심과 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금의 적폐청

산과 새 국가 혁신을 위해 탄핵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국정농단에 대해 개선 시키고 개선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와 규칙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은 아니고 탄핵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책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점에서 모든 탄핵 세력들은 적폐청산과 국가 세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럴 때에만 청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적폐청산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뉴스스



왼쪽부터 신상진, 나경원, 이주영,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일화' 바람이 변수될까

친홍(친 홍준표)과 친박(친 박근혜)계 대결 양상으로 흐르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양상이 소위 '중립지대'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 움직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친홍계의 당선 시 사당화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친박계

심재철, 이주영(이상 5선), 조경태, 한선교(이상 4선) 의원과 친박계인 유기준(4선) 의원 등이 치고 올라가며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다. 다지구도 양상이 지속될 경우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는 홍, 김 의원의 우세가 점망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일화 변수가 떠오

고 있다. '친홍도 친박도 안된다'는 당 내 기류가 어느정도 형성되면서 중립지대 의원들의 합종연횡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이주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 그리고 나경원, 신상진 의원 등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중립의원 모임'을 가졌다. 약 50분 간의 회동 끝에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이었던 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 의원은 원내

김성태·홍문종 양강구도 속 중립 단일화 움직임 본격화
나경원 불출마 선언 "계파없는 중립지대가 당 이끌어야"

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표면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단일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의원의 중도 사퇴로 사실상 중립지대 후보군이 압축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단일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제3계 단일화가 성사돼도 결국엔 '찾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예측도 만만찮다. 일반 선거와는 달리 의원들이 투표권을 쥐고 있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 계파색을 지니어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 내에서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막발을 주고 받으며 계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원들의 투표에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도덕성 등의 요인 보다는 향후 내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힘을 지닌 특정 계파 후보가 많은 표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